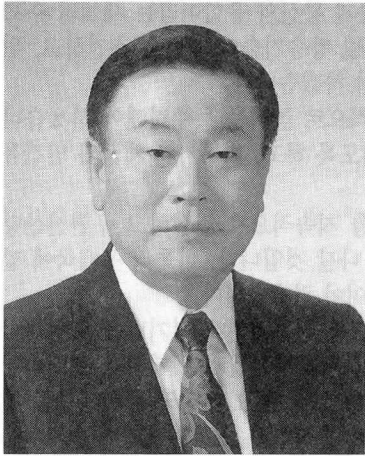


## 승리는 난국돌파에 대한 고귀한 보상



1998년, 무인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항상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는 언제나 가슴 두근거리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IMF 파고라는 크나 큰 장애가 있어 새해 아침을 희망으로만 맞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은 금물입니다. 승리는 항상 난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강인하게 돌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보상입니다.

### 올해의 키워드는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올해의 어려움의 키워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통분담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한국적 구조를 IMF체제를 기점으로 세계적인 보편적 구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의 정부형태, 금융시스템, 기업경영의 모형, 개인 삶의 방식을 채권국들의 형태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업이 조직을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다시 재조직하는 아픈 작업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투자는 유보되며, 소비는 줄여야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소위 3저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사안들이 될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세금 등 소위 5고 시대를 살아갈 것이 강요되는 것입니다.

### 경쟁력 강화만이 난국의 돌파구

이 시대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제금융에 의하여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단기처방일 뿐, 결국에는 그 원리금을 갚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경쟁력에 의한 수출의 증대입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네 가지를 길잡이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두 배로 일합니다.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일들의 시행착오를 반성하며, 기획단계서부터 발상을 바꾸어 목표에서 이미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두 배의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완벽한 하나의 제품은 사람의 수나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적게 받으십시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받는 것은 적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럼으로써 고통을 분담하고 공생의 길을 도모하게 됩니다.

셋째, 외국으로 나갑시다. 우리는 이제 외국에서 승부를 내야 합니다. 해외시장의 개척만이 지금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넷째, 감동경영을 더욱 심화합니다. 외부고객이 만족하고 내부직원이 신바람 나서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을 펼쳐나갑시다.

#### 후배에게 들려줄 멋진 무용담을 만들자

사일런트 스프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농장에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풀벌레가 없어지고 새들마저 찾아오지 않는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 위축으로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사일런트 컴퍼니, 이곳에는 승리의 함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6·25세대들은 IMF체제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 형편은 우리에게 진취적인 열정과 애국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좌절하는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일에 몰두하여 10년 후쯤 후배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무용담을 이 기회에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98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가 오히려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발전의 계기로 이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통신인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우리 모두 가일층 분발하여 힘을 모읍시다. 그리하여 정보통신이 1년 또는 2년 후 IMF체제를 극복하는데 일등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회원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인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

1998.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 궁 석